

# 베트남의 분단과 미국의 역할\*

강 정 구\*\*

## 목 차

- I. 머리말
- II. 연구방법
- III. 베트남의 분단과정과 그 성격
- IV. 베트남 민족통일국가의 설립
- V. 정치적 분단
  - 1. 1차분단 과정과 미국의 역할
  - 2. 2차분단 과정과 미국의 역할
  - 3. 3차분단 과정과 미국의 역할
- VI. 맺음말

## I. 머리말

제3세계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 우리와 가장 유사한 근·현대사적 경험을 갖춘 국가를 꼽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베트남을 선택할 것이다. 두 나라는 중국의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유사한 중세기적 경험에서부터 시작하여 1860년대 나폴레옹 3세하 프랑스 제국주의 팽창정책에 의해 조선은 병인양요를 겪었고 베트남은 식민지로 전락하였으며, 이후 2차대전은 끝나는 시점까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와 단기간의 일본점령을 겪는 유사한 식민지배를 경험하였으며, 해방이후 북부베트남은 중국의 점령을 남부베트남은 영국의 점령을 받는 지리적 분단점령을 다같이 경험하였다. 이후 똑같이 남에는 자본주의체제,

\*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북에는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분단정권이 형성되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분단에서 전쟁과 통일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우리의 경우도 분단에서 전쟁 및 자본주의 중진국으로의 진입까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었다. 단적으로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그 역사상 최초로 패배한 또는 최소한 무승부로 끝낼 수밖에 없는 뼈아픈 상처를 입었고, 베트남전쟁에서는 완전히 패배하여 미국이 누리던 세계의 경찰이라는 직분을 포기하고 야경꾼정도로 스스로 역할 축소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행로의 유사성, 외세인 미국의 결정적 영향력, 동시대의 사회경제적 연계성, 민족통일에 대한 유용한 역사적 지침성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과 한국의 비교사적 연구나 베트남 단독 사례연구를 통한 베트남에 대한 기초지식의 축적은 역사적 또 동시대사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베트남의 식민지 기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역사과정에 걸쳐 시기별 또는 단계별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도 유사한 역사적 계기나 단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체험 및 대처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거울반사경적 연구기법(mirrored window method: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출발하였음)에 의해 오늘날의 도이모이에 이르기까지 분석한다면 베트남에 대한 기초지식의 증진은 물론 우리 나라의 역사이해와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외세의 행위유형 규명에 새로운 안목과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공간에서부터 분단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외세의 개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곧,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호지명중심의 좌파민족주의세력에 의해 주도된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남북부베트남을 총괄하는 민족통일정부로 발전하는데 직면하였던 주요한 장애요인을 주로 외세의 간섭에 초점을 맞춰 규명하고자 한다.<sup>2)</sup>

이러한 접근은 “해방공간에 만약 외세가 개입하지 않고 베트남 자체의 내재적인 역사동력에 의해 순수하게 베트남의 역사가 진행되었더라면, 곧 외세를 통

2) 외적 변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베트남의 내적 요인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이러한 내적 요인, 특히 북부의 퉁킨, 중부의 안남, 남부의 코친차이나로 분리되는 지역적 차이 등은 베트남의 분단에 대한 인과적 요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외세의 의한 분단의 결과로 지역적 차이가 조장되고 확산된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제한 내재적인 베트남의 역사궤적(historical trajectory)은, 좌익민족주의세력에 의해 통일정부가 수립되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역사궤적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현대사 규명만이 30여년의 베트남통일전쟁을 이해하고, 세계최강의 미국이라는 외세와 끈질긴 투쟁에서 승리해 통일을 쟁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이 논문은 연구방법으로 거울반사경적 방법(mirrored window method)과 역사추상형비교방법(Historical Projection Comparative Method)을 기본으로 쓴다.

거울반사경적 방법은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설정하고, 베트남도 이와 유사한 역사적 계기를 가지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고, 만약 유사한 역사적 계기를 가졌다면 베트남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계기를 겪었으며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분단 5단계설을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설정하여 베트남도 이와 유사한 계기를 가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 5단계 틀에 맞추어 베트남의 분단과정을 분석하면서 외세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단 5단계설은 지리적, 이념적, 사회적, 정치적, 및 고착적 분단으로 설정된다.

두번째 방법은 베링턴 무어(Barrington Moore)와 톰슨(E. P. Thompson) 등이 암묵적으로, 또 비체계적으로 역사연구에 활용하였던 방법으로 본인이 정교화하고 체계화한 방법론이다.<sup>3)</sup>

이 방법은 우선 ‘외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이라는 상상적 실험 또는 역사적 가정을 통해 순수해방공간(the Pure Period)을 설정한다. 이 순수해방공간의 역사적 시점에서 연구대상인 종속변수와 관련된 역사구조적 조건(그 이전 사회로부터 전수된 객관적·주체적 조건)을 밝힌다. 다시 이 역사구조적 조건이 외세의 개입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내재적인 지속을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논리적 극대화(logical exaggeration)를 피한다. 이러한 극대화된 역사적 조건하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역사추상을 통해 역사추상형 모델을 설정한다. 이 역사추상형 모델은 외세를 통제(control)하여 순수한 내적 역사동력에 의해 설정되었으므로

3) 역사추상형비교방법론에 관한 논의 및 그 방법론에 의한 한국분단과 한국전쟁을 분석할 글로는 (강정구 1993)을 참조 바란다.

민족주체적인, 곧 외세가 배제된 역사체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사추상형 모델이 훌륭한 민족중심적인 준거틀(framework)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역사추상형비교방법은 외세를 통제하여 순수한 내적 역사동력에 의해 설정된 이 역사추상형 모델과 실제의 역사모형과를 비교하여, 양 모형간에 발견되는 차이를 외세의 영향력에 의한 결과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또한 민족중심적인 외세의 평가는 외세의 지향과 외세의 영향력 하에 실제로 진행된 실제 역사모형이 외세를 상상으로 통제(control)하여 구성된(그래서 민족주체적인) 역사추상형과 얼마나 유사한가 이질적인가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비교 결과 차이점이 없이 거의 동일하다면 외세는 민족주체적인 역사체도에 장애요인이 아니거나 가속제 또는 촉진변수(reinforcing variable)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지극히 희박하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보다 이질적이고 거리가 멀수록 외세는 민족주체적인 역사체도를 가로막은 반민족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역사추상형비교방법에 의해 우리는 매 분단단계마다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역사추상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각 단계마다 외세가 끼친 영향력을 고립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베트남은 1945년 북위 16도선을 계선으로 하는 지리적 분단을 겪었을까? 또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고딘 디엡정권과 같은 연속적 정권이 남베트남에 형성되었을까? 외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2차대전후 베트남은 1차분단을 겪었을까? 등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역사추상형 비교방법에 의해 구함으로써 베트남 분단과정에서 외세가 수행한 독자적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구조적 요인을 통한 분석보다는 외세의 개입이 없었던 순수해방공간에서 호志明중심의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창건되고,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시험한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베트남민주공화국 중심의 정치·사회·경제질서가 외세의 개입없이 지속되었더라면 1차에서 3차에 걸친 정치적 분단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느슨하게 반증하는 형식으로 논지를 이끌어 나가겠다.

### III. 베트남의 분단과정과 그 성격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글은 베트남분단을 조선분단과 유사한 것으로 가정하

교 조선의 분단성격의 틀로 이해하려 한다. 곧, 거울반사경적 방법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베트남이해를 시도한다.

우선 조선의 분단은 5단계로 나눌 수 있고 가설적 수준에서 베트남 분단도 이에 1:1 조응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첫단계는 1945년 8월 미국의 일반명령 1호를 계기로 38도선을 기준으로 형성된 지리적 분단이다. 북한에 소련이 점령하고 남한에 미군이 점령하였듯이, 북위 16도선을 계선으로 하여 남베트남에는 영국군이 북베트남에는 장개석의 중국군이 점령했다.

조선의 경우 카이로회담과 알타회담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으나 알타회담에서는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언급밖에 없었다. 종전직전의 포츠담회담에서는 아예 조선에 대한 논의가 없게 되어 조선의 지리적 분단은 전적으로 미국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져 미국의 일반명령 1호로 집행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바로 8월 14일 통보를 받았고 소련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일반명령 1호로 지리적 분단을 기정 사실화하였다.

베트남 전후처리에 관한 미국의 정책은 초기에는 전체 동남아 및 조선에 대한 구상이었던 다국적 신탁통치였다. 루주벨트는 필리핀을 약 40년간 통치해오니까 이제 겨우 자치능력이 배양되어 문명국의 대열에 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아, 버마 등을 다국적 신탁통치를 통해 프랑스나 영국 등의 약탈적 식민주의에서 동남아를 구제하고, 자치능력을 부양시켜, 독립시킨다는 온정적 제국주의(sentimental imperialism)의 기조에서 동남아 전후처리를 구상하게 되었다.(강정구 1989b)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영국과 프랑스의 강력한 저항과 미국군부의 군사기지 확보라는 내부의 반발에 의해 좌절되었다. 오히려 미국은 프랑스와 영국의 재식민화 정책을 옹호하게 되고, 트루만정권하에서는 재식민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의해 포츠담회담에서 베트남을 분할 점령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The U.S. Dept. of State 1945, 293)

이러한 초기정책은 비록 동남아 민족주의와 해방공간에서 사회변혁을 추진하는 혁명적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점을 갖고 있고, 어디까지나 미국의 시각에 불과하긴 하지만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원초적 식민주의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었다.

이같은 지리적 분단은 남북한의 경우와는 달리 거주 및 이전의 자유가 제한

4) 조선의 분단에 관한 5단계설은 (강정구 1993)을 참조 바란다.

되지 않았고, 곧 이어 46년 12월부터 시작된 제1차 베트남민족해방전쟁으로 전선이 베트남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프랑스 점령지역의 거점지역과 베트남민주공화국 장악의 해방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16도선으로 설정된 처음의 지리적 분단은 계속적인 분단선이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54년 제네바협정 이후 설정된 17도선이 비록 일시적인 군사적 분계선이긴 하지만 지리적 분단선으로 작용하였다.

둘째는 1946년 초 신탁과동을 계기로 참여하게 대립된 이념적 분단이다. 일찍이 북한은 사회주의 지향의 좌익이념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진행되었으나 46년초부터 신탁문제를 둘러싸고 이념적 갈등이 표출되었다. 남한 역시 좌익이념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진행되었으나 미국의 개입과 신탁과동을 계기로 극단적인 이념적 분열과 대립으로 치달았고, 이러한 이념적 분단은 남쪽에는 극단적인 반공주의 이념, 북쪽에는 반자본주의 및 반미주의로 나타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조선과 달리 초기부터 사회주의 지향의 좌파이념이 남북을 압도하였다. 단지 고딘 디엠정권이후 디엠을 정점으로 하는 베트남공화국의 지배연합 세력만이 반공적 우익이념을 지향하였다. 이들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미국의 지원만 없으면 며칠사이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념적 대치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념적 분단은 베트남의 경우 적용되기 힘들다.

셋째는 북한이 1946년부터 실시한 '반제반봉건민주개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남과 북이 완전히 이질적인 사회로 분단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46년 완료하여 봉건적 토지제도가 소멸되었고,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여 독점자본과 일본자본을 폐절시켰으며, 여러 가지 노동법, 남녀평등법, 반봉건법을 제정하여 봉건주의 잔재와 일제잔재를 청산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진작시켜 1958년 말부터는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은 한국전쟁시점까지 전혀 사회경제적 개혁을 시행하지 않아 식민지하의 식민지반봉건주의 사회경제적 질서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남북은 이질적인 사회로 분단을 맞게 되었다. 곧 북한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소상공생산양식이 병존하는 사회구성체였고, 남한은 봉건주의, 자본주의, 소상공생산양식이 병존하는 사회구성체로 남북간의 균열은 심화되었다.

북베트남의 경우 53년에서 54년 사이에 토지개혁을 실시해 봉건적 토지소유제를 해소하였고, 45년에서 52년 사이에 1천4백만의 문맹퇴치를 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개혁이 진행되었으며, 59년에는 농지제도를 협동농장체제로 전환하여 전

사회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사회구성체의 변혁을 마쳤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혁이 1960년 1월 1일 공포된 신 헌법에 구현되었다.

그러나 남베트남의 경우 농지개혁이 허구적인 농지개혁에 머무르고 여타 부문의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존의 식민지반봉건 사회경제체제를 지속하고 단지 자본주의 영역이 좀 더 확대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체제의 이질화가, 곧 사회적 분단이 조선처럼 급속도로 확연하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이루어 졌다.

넷째는 정치적 분단으로 1948년 남한은 5·10단독선거를 통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곧 이어 행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북한은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남과 북에 각기 한반도의 주권을 주장하는 별개의 개별국가가 탄생되었다. 이로써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주권국가가 등장하여 정치적 분단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비록 정치적 수준에서는 분단이 확정되었지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같은 나라,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과 달리 베트남의 정치적 분단은 여러 소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종전이 가까워지는 1944년에서부터 베트민은 까오방의 무장병력을 중심으로 7개성에서 ‘베트민 해방구’를 구축하고, 45년 3월 일본군에 의해 프랑스 총독부가 무너지고, 바오 다이의 베트남제국이 성립되자 4월부터 베트민은 임시정부형태의 해방위원회를 조직하고 대중조직인 구국회를 바탕으로 해방구와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일본이 패망하자 8월 19일 바오 다이 제국의 하노이권력을 퇴진시켜 북부베트남의 권력을 장악하였고, 23일에는 후에에서 봉기를 성공시켜 중부베트남을 장악하였고, 25일에는 베트남제국의 바오 다이 왕을 퇴진시켰고, 사이공에는 남부행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8월혁명을 성공시켰다. 이어서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선언을 함으로써 해방공간에 독립된 통일국가로 출범하였다.

베트민 또는 베트남민주공화국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와 해방공간의 국가권력 구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시점에서 만약 영국군의 개입 또는 미국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결코 프랑스의 재식민지화 시도로 인한 정치적 분단은 발생하지 않았을 테고, 전베트남에 걸쳐 근본적 사회개혁은 혁명초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베트남의 정치적 분단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영국군의 도움으로 재기한 프랑스군이 1946년 남부베트남에 코친 차이나 자치정부를 수립함으로써 1차 정치적 분단을 맞게 되고, 49년 3월에 엘리제협정으로 49년 6월 바오 다이휘하의 베트남국(the State of Vietnam)을 창건함으로써 2차 정치적 분단을 맞았다. 제네바협정으로 베트남의 통일이 기대되었으나 프랑스가 퇴진

하고 미국이 1955년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고딘 디엠하의 베트남공화국(the Republic of Vietnam)을 남부에 출범시킴으로써 제3차 정치적 분단을 맞게 되었다.

1차 분단은 독립한 북부의 베트남민주공화국과 프랑스 식민지배하의 자치 정부라는 구도의 분단이었으며, 2차 분단은 군사·외교권 등이 없어 형식상으로도 제대로 독립되지 못한 허구적 독립국인 바오 다이 베트남제국과의 분단이었으며, 3차 분단은 비록 형식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내적인 권력기반이 거의 없이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미국괴뢰국과의 분단이었다.

다섯째는 고착적 분단으로 한국전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앞의 4단계까지는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정서적 또는 심리적인 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5백만에 가까운 동족상잔의 비극을 체험한 이후 남북 주민들 사이조차 서로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게 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미국과의 전쟁에서 북부베트남이 승리하여 통일을 이루게 되어 고착적 분단이 아니라 분단해소라는 베트남의 민족사적 과제를 구현하였다.

위의 5가지 분단 가운데 이 글은 정치적 분단에 한정하여 외세인 프랑스와 미국의 역할을 규명하기로 하겠다.

#### IV. 베트남민족통일국가의 성립

1945년 9월 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선언함으로써 통일된 민족 독립국가로 출범한 베트남은 그 뿌리를 1941년 5월에 북부 까오방성에 있는 박보에서 열린 인도차이나공산당 제8차중앙위 결정에 두고 있다. 이 공산당 결정은 2차대전의 발발에 즈음하여 베트남민족의 주요 적을 프랑스와 일본파시스트로 설정하고, 이 적들을 타도하는 투쟁에 전 계층과 전 민족구성원이 참가하도록 하는 '베트남독립동맹회'(흔히들 베트민이라 함)를 결성함으로써 투쟁의 목표를 민족해방에 두었다.

호지명은 경축사에서, "민족해방의 기회는 왔다. 프랑스 자신은 우리 나라를 지배할 수 없다. 일본은 한편으로 중국에 덮이 걸려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영국군에 의해 족쇄가 걸려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의 병력을 배치할 수 없다. 우리 민족전체가 단결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투쟁한다면 프랑스와 일본을



처부술 수 있다”면서 “돈 가진 자는 돈으로,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재능을 가진 자는 재능으로” 민족해방에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고, 민족통일전선 노선을 분명히 했다.(Ho Chi Minh 1982, v. 4, 151-54, in Marvin E. Gettleman et al. 1985, 37-38)

최소강령으로는 “일본-프랑스 파시스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한 그 날이 오면 새로운 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하여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정부를 수립하고 금성홍기를 국기로 할 것”이라는 민족해방의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세부강령은 민족반역자 처벌과 기존의 식민지권력이 체결한 협정을 폐기하여 식민잔재를 청산하는 민족해방, 보통선거권과 언론자유 등의 민주주의, 봉건적 경제체제를 일소하는 반봉건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반제반봉건혁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투쟁의 중심은 정치투쟁과 군사투쟁을 통한 민족해방에 두고 민족부르조아나 지주까지도 포섭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을 추구하였다. 또한 농민구국회, 노동자구국회, 청년구국회 등의 대중조직을 건설하여 인민권력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베트남은 이후 1944년 12월에는 까오방의 무장병력을 중심으로 ‘베트남해방군 무장선전대’를 창설하여 ‘베트남 해방군’을 만들고, 45년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지자 무장병력을 통일하고, 베트남 해방군으로 재편하면서 임시정부 형태의 해방위원회 및 인민위원회를 각 기업소와 지역 행정단위마다 조직하면서 민족해방 국가의 건국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이 패망하자 8월 16일 베트남 인민회의를 열어 “인도차이나에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제국주의자와 그 앞잡이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일본군을 무장해제하여 나라의 주인으로 연합군을 맞아야 한다”면서 총봉기를 일으켜 바오 다이제국을 전복하고 인민권력을 수립하는 8월혁명을 성공시킨다. 9월 2일 전 베트남에 걸쳐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독립선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프랑스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다. 엄연한 진실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것이라는 점이다. 프랑스는 도망갔다. 일본은 항복했다. 바오 다이 황제는 폐위되었다. ... 우리는 프랑스의 지배에 항거하여 8년 이상 용감히 싸워왔다. 우리는 또한 과거 수년동안 연합국과 서로 손잡고 파시스트와 싸워왔다. 이러한 우리들은 마땅히 해방이 되고 독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민주공화국 임시정부요원들은 베트남이 자유를 되찾았고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사실은 이미 독립되었다. 우리 베트남 인민들은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투쟁하고 목숨과 재산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Ho Chi Minh 1982, 151-54, in Marvin E. Gettleman et al. 1985, 41-42)

독립선언에 이어 9월 3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8월 16일 만자오회의에서 채택한 베트남 10대강령을 재확인하고 당면 6대중점사업을 채택한다.<sup>5)</sup>

6대 중점사업은:

1. 기아극복을 위한 중산운동을 전개하고 열흘에 한끼식 전 동포가 절약하여 궁핍한 자에게 나눠줄 것
2. 문맹퇴치운동
3. 보통선거 실시와 국민의 자유 및 민주주의 실현
4. 근면, 검소, 침략, 선행 등 장려
5. 인두세, 시장세, 소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세 폐지와 아편 흡연 금지
6. 신앙자유와 무신앙의 단결 선언

이러한 강령과 중점사업하에 베트남민주공화국은 흥년과 일본 및 북부를 점령한 장개석군대의 수탈에 의해 기아선상에 헤매는 200만에 가까운 국민자의 구제정책을 펴고, 각종 가렴주구의 세제를 폐지하여 인민에 대한 수탈을 폐절시키고, 문맹퇴치운동과 초등교육의 강화로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이러한 결과 1946년 봄 인민들은 여전히 영양실조 상태에 있기는 하였지만 더 이상 굶어 죽지는 않게 되었다.

또한 주요산업을 국유화하고 베트남 10대 강령에서 제시한 개혁정책을 온건하게 추진했다. 이러한 개혁의 온건성은 민족통일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잡기 위하여는 여러 계층을 포섭하는 통일전선의 지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45년 9월 23일에는 남부행정위원회를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해체시키고, 9월 25일부터 프랑스는 남부지역에서 베트남 소탕작전을 전개하는 등 프

5) 베트남 10대강령은 아래와 같다. 1. 완전독립의 기초 위에 베트남민주공화국 건설, 2. 인민무장으로 베트남 해방군 확대, 3. 침략자와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해 공유화 또는 인민에 분배, 4. 프랑스와 일본 통치의 가혹한 세제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세제시행, 5. 민주적 자유권, 민족평등권(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임), 남녀평등권 등 인민의 제권리 보장, 6. 공유지 분배, 빈농의 토지 소유권 보장, 조세감면 및 채무상환 완화, 7·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보장제, 사회보장제, 8. 국민경제 건설, 농업발전, 국립은행 개설, 9. 국민교육 확립, 문맹일소, 초등의무교육, 10. 연합국 및 약소민족국가와 국교수립 및 우호강화.  
6) 영국은 실론, 버마, 말레이아 등의 재식민지화라는 자신의 이해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의 다국적 신탁통치를 극렬히 반대하였고 같은 처지에 있는 프랑스를 지원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영국군은 베트남에 상륙하자 45년 9월 20일 16도선 이하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연합군 이외는 일체의 병기소지를 금지시키고, 프랑스군의 재무장을 도와주었으며, 일본군을 베트남 소탕작전에 이용하도록 허용하였다. 미국 또한 프랑스군에 수송선을 제공해 베트남의 재식민지화를 지원하였다.

랑스의 재식민지화에<sup>6)</sup> 직면하여 베트남정부는 인도차이나공산당을 45년 11월 중순 해체시켜 더욱더 통일전선을 강화하였다. 더 나아가 프랑스를 축출하는데 동의하는 모든 단체들을(비정치단체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하는 범민족적 애국 단체인 리엔베엣, 곧 ‘베트남국민연합회’를 조직하여 베트남도 이 국민연합회의 하부기관으로 재편되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 임시정부도 베트남국민연합 임시정부로 재편되어 베트남 이외의 민족주의 정당들이 참여하게 하여 확대된 통일전선 정부로 탈바꿈하였다.

베트남정부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하여 46년 1월 6일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총선거는 톤킨과 안남의 전지역에서 이루어 졌으며 코친 차이나에서는 베트남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8월혁명 당시 선임된 임시인민위원회를 해체하고 이제 정식 국가기관의 하나인 인민위원 또는 행정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총의석인 300석 가운데 베트남이 230석을 차지하고, 베트남국민당이 50석, 베트남혁명동맹회가 20석을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국민당과 혁명동맹회의 의석은 통일전선 차원에서 미리 배분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베트남이 100%의 지지를 획득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을 뿐 대중의 지지는 없었다. 다른 민족주의 세력도 대중성이 결여되고 친일부역행위 때문에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46년 3월 2일 베트남 제1회 국회의 1차 회의에서 호지명을 정부수반으로 선출하여 정식으로 합법적인 새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로써 정통성과 합법성이란 형식적 합리성에 있어서도 북부베트남은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의 통일전선정책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변혁 및 개혁조치는 프랑스가 점령한 남부지역인 코친 차이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북부베트남에 대한 베트남인민들의 압도적 지지는 프랑스나 남부베트남 자치정부의 언명에서도 증명된다. 코친 차이나 분리주의자인 바제(B. Baze)는 자치정부 수립 1년후 한 기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현재는 국민투표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를 반대하는 주민이 90%나 된다”고 실토했다. 또 자치정부의 대통령인 호암박사도 46년 2월 7일 AFP기자에게 “사이공, 쪼른지구를 중심으로 각각 2000여 주민이 있는 150-200여 사이공 주변지구 촌락까지 밖에 내 권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과대평가를 하더라도 안남인구의 10%에 불과한 수치이다.(眞保潤一郎 1986, 116-117)

1949년 11월 4일 미국무성 극동문제 보좌관인 포스딕(Raymond Fosdick)이 제습(Phillip Jessup) 정치고문에게 보낸 메모에서도 바오 다이정권의 소멸과 베트남민족주의의 강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바오 다이는 망하게 되어 있다. 프랑스가 억지로 제시하는 타협안으로는 바오 다이를 구명하지 못한다. 인도차이나는 완전한 민족주의로 급박하게 나아가고 있다. 어떠한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호지명이 대안으로는 정말 유쾌하지는 않다. 그러나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예측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요소도 있다.” (Memorandum, Fosdick to Mr. Phillip Jessup, Nov. 4, 1949, National Archives 896.00/11-1849)

또한 미국방성은 호지명이 아시아의 티토식으로 소련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걸어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검토서에서 베트남에 대한 지지도나 정통성 등을 인정하고 있다.

“호지명은 베트남을 창설하였는데 이 정치조직은 전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프랑스에 대항하여 저항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조직이었다. 2차대전 중 그는 전국적인 추종세력을 가진 유일한 베트남지도자였다. 그는 1945년 8-9월혁명에서 일본괴뢰정부를 전복하고, 바오 다이 황제에게 폐위를 받아내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고, 전쟁직후 베트남에 진주하는 연합군을 영접하여 베트남인민들로부터 폭넓은 충성심을 확보하였다. 연합군의 영접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마치 베트남에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처럼 행세했다. 1945년 9월 몇주동안 베트남은 근대역사상 처음으로 유일하게 외국의 지배로부터 행방되는 해방공간을 맞았고 이 기간동안 베트남은 호지명의 지도하에 북부에서 남부까지 통합되어 있었다… 호지명은 베트남인들 가운데 실질적인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를 또 다른 조지 와싱턴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도를 지나친 것일지 몰라도 전시중 베트남저항운동에서 유일하게 인민대중에게 잘 알려진 지도자였고,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가장 강력한 정치운동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또한 모의 투표를 한다면 호지명만이 마을단위에까지 득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Dept. of Defense n.d.)

또한 미국이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시점에서 당시 미국대통령인 아이젠하워의 고백과 당시 부통령이었던 닉슨의 연설에서도 베트남정부의 절대적 지지도와 광고성은 나타나고 있다. “내가 직접 이야기하거나 편지를 교환한 인도차이나문제 전문가들 가운데 전시중에 선거를 실시한다면 전체인구의 80% 이상이 바오 다이가 아니라 호지명에 투표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Dwight Eisenhower 1963, 372) 닉슨은 1954년 4월, “어떤 사람은 프랑스가 철수하면 베트남인들은 독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활기차게 싸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르거나

자치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 만약 프랑스가 철수하면 인도차이나는 한달 내에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New York Times*, April 17, 1954)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적 정통성, 베트남 성립이후의 해방구와 해방위원회 및 구국회의 조직화로 인한 인민권력의 기반 강화, 8월혁명에 의한 일본괴뢰국인 바오 다이 제국의 타도 및 전역에 걸친 지방정권 수립, 호지명을 수반으로 한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선언 및 국가무력 기구인 해방군의 강화, 10대강령과 6대중점사업의 시행을 통한 민생고 해결 및 식민잔재 청산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변혁, 베트남 국민연합 정부의 수립을 통한 통일전선의 확대강화, 거의 베트남 전역에 걸친 총선거를 통한 합법적 정권의 창출, 베트남인민의 전폭적인 지지, 남부 코친 차이나 식민정권과의 극명한 대조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독립국가의 기틀을 갖추었다.

이어서 전개되는 프랑스제식민화의 기도로 추진된 외세인 프랑스에 의한 남부분리운동을 통한 정치적 분단 및 제1차베트남전쟁이 없었더라면 초기부터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민족통일정부로 또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사회변혁을 완수하는 혁명정부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추상은 프랑斯拉는 외세와 그 이후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외세에 의해 지연되면서 베트남 민족의 30년 시련이 전개되었다.

## V. 정치적 분단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이 패망하는 시점에서 일본의 괴뢰정부인 바오 다이 제국이 베트남에 의해 8월혁명으로 몰락하고 황제 바오 다이는 폐위되어 신생정부의 고문관으로 취임하였으며, 베트남 전역에 걸쳐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주권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주권의 상태는 오래 가지 못하고 서로가 주권을 주장하는 2중권력의 상태인 정치적 분단을 맞게 된다.

이미 앞에서 요약한대로 베트남의 정치적 분단은 3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1946년 6월 1일 프랑스가 남부의 코친 차이나에 자치국정부를 수립하면서 1차분단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49년 3월 홍콩에 망명간 바오 다이를 불러들여 명목적인 독립을 안겨주고 베트남국(the State of Vietnam)을 재건시키면서 2차분단을 맞게 되었다. 프랑스가 1954년 디엔 비에푸 전투에서 참패하여 제네바 협정으로 물러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협약을 방기한 후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미국이 베트남국을 해체시키고 고딘 디엠하의 베트남공화국(the Repub-

lic of Vietnam)을 수립함으로써 3차분단에 이르렀다.

1차분단은 북부의 베트남민주공화국(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과 프랑스식민정부와의 분단이었으며, 2차분단 역시 기본적으로는 1차분단과 같이 북부의 베트남민주공화국과 프랑스식민정부와의 분단구도였지만 단지 형식적으로는 허구적 독립국가인 베트남국과의 분단이었다. 3차분단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의 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괴뢰국가에 불과한 베트남공화국과 북부의 정통적인 베트남민주공화국과의 분단구도였다. 또한 1차분단은 프랑스가 베트남전체를 재식민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분단이었고, 2차분단은 전 베트남의 식민화가 불가능하기에 남부와 중부를 계속 지배하려는 저의에서 추진한 분할지배전략의 일환이었으며, 3차분단은 미국이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고 보루를 쌓기 위한 분단이었다.

3차례의 정치적 분단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정책은, 1차분단의 경우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개입, 2차분단은 ‘적극적이고 간접적인’ 개입, 3차분단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으로 ‘베트남문제의 미국화’로 단순화될 수 있다.

표1. 베트남의 정치적 분단

정치적 분 단	기점과 베트남의 2중권력 형태	미국개입 유형화	전 쟁 성 격	프랑스 및 미국의 목표	전 환 계 기
1차 분단	1946. 6. 1 코친 차이나 자치국 출범	소극적, 간접적 개입	반식민·민족해방 전쟁 對 재식민주의 전쟁	프랑스: 전 베트남의 재식민화 미국: 프랑스 및 유럽 재건	8월혁명에 의한 전 베트남 관할의 베트남민주공화국 통일정부 출범
2차 분단	1949. 6. 1. 바오다이의 베트남국( the State of Vietnam)출범	적극적, 간접적 개입	반식민·민족해방 전쟁 對 재식민주의·반공산주의 전쟁	프랑스: 분할지배를 통한 남베트남의 실질적 식민화 미국: 반공정권 수립	1. 중국혁명 성공 2. 소련 원자탄 개발 3. 미국이 냉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인 NSC68체제 출범
3차 분단	1955. 10. 26 베트남공화국의 디엠체제 출범	적극적, 직접적 개입	반식민·민족해방 전쟁 對 반공산주의 전쟁	미국: 남베트남을 동남아 반공기지의 최첨단 보루화	1. 프랑스 철군 2. 제네바선언에 의한 베트남통일 정부 수립확정

1. 1차분단 과정과 미국의 역할

동남아 식민제국에 대해 야수적인 유럽식민지배를 지속시키기보다는 다국적

신탁통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립시킨다는 루주벨트의 정책은 1945년 3월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저항에 부딪쳐 후퇴하게 된다. 루주벨트는 유럽 우선주의때문에 더 이상 전통적 식민지배에 대한 계동을 걸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트루만정권에서는 프랑스식민주의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유럽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이 확정되었다. 이 결과 포츠담회담에서 영국이 남부를 점령하게 하여 프랑스식민주의를 지원하였다. 그레이시(Douglas Gracey) 영국점령군사령관은 프랑스포로를 석방하여 재무장시키고, 일본군을 재무장시키고, 이들 일본군과 프랑스군을 동원하여 배트민정부의 권력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없이 묵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베트남정책에 힘입어, 45년 9월 23일에는 배트민정부의 남부 행정위원회를 영국과 프랑스군대가 합동으로 해체시키고, 9월 25일부터 배트민 소탕전을 벌려 남부에서는 '작은전쟁'이 시작되었다. 2월 5일에는 군사령부가 "인도차이나 남부전역과 중부의 남부지구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북위 15도선 이남지역의 프랑스주권이 확립되었다"고 발표했다. 3월24일에는 남부지역관할권을 동남아군사령부에서 프랑스-인도차이나당국으로 이전하여 식민지 부활을 공식화하였다.

46년 2월4일에는 코친차이나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3월 26일에는 구엔 반 띠엔을 임시자치정부 대통령으로 취임시키고, 6월 1일에는 자치정부를 정식으로 성립시켜 남부에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북부에는 베트남민주공화국 남부에는 프랑스총독부하의 자치정부라는 2중권력이 나타나게 되어 1차 정치적 분단이 시작되었다.

자치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6년 3월 6일 베트남의 호지명과 장 생뜨니사에 1차베트남-프랑스 예비협정이 체결되었다. 예비협정은 첫째, 베트남민주공화국은 프랑스연방으로 자유국가(프랑스 측 주장)·독립국가(베트남의 주장)로 인정된다. 둘째, 중부베트남인 안남과 남부베트남인 코친 차이나의 단일국가 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셋째, 베트남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진주하는 프랑스군대를 정중히 맞이한다. 넷째,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 각 지역의 군대진주 등 당면한 여러 현황들을 계속 협상에 의해 해결한다.(Marvin Gettleman et al. 1985, 49-50) 이 협정에 따라 1만5천 프랑스군대가 북부베트남에 진주하고 18만의 중국군이 철군함으로써 베트남은 두개의 외세에서 하나의 외세를 상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협정체결 20일만에 프랑스는 코칭차이나공화국이라는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어 6월 1일에는 자치국을 성립시켜 예비협정을 위배했다. 이어 9월 14일

호지명과 프랑스영토상인 마리우스 무테사이에 체결된 잠정협정에서 프랑스는 다시 3월협정을 재확인하고, 베트남공화국지역에서 휴전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프랑스는 또 다시 협정을 위배하고는 11월 16일 남베트남의 전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11월 20일에는 하노이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중국국경지역을 점령하고는 12월 19일에는 베트민군의 무장해체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발했다. 이에 호지명대통령은 12월 20일 전국민에게 “총을 가진 자는 총으로써, 칼가진자는 칼로써” 구국 무장봉기에 참여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본격적인 제1차베트남민족해방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에 의한 베트남의 1차적 분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1946년에 서 1950년까지, 곧 중국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베트민정부가 1950년 1월 18일 승인되고 잇따라 소련의 승인(50년 1월 31일)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프랑스이 재식민지화정책을 간접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개입의 형식을 띠었다.

전쟁중 미국의 첩보부대인 OSS와 베트민과의 협조사항이나 트루만에 대한 호지명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프랑스의 재식민화를 지원했다.

호지명은 45년 10월 17일 트루만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호소했다. 첫째, 극동자문위원회에 베트남을 빼고 프랑스를 넣은 점은 법적(de jure) 으로나 사실적(de facto)으로 부당하다. 왜냐면 프랑스와 베트남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연맹관계도 없다. 바오 다이는 1863년과 1884년에 체결된 프랑스와의 조약을 폐기시켰고, 또 스스로 자진하여 퇴진하였고, 그 정부를 베트남민주공화국에 이양했다. 또 임시정부는 이 두 조약의 폐기를 수용했다. 사실적으로는 프랑스는 1945년 3월 9일 통치권을 일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통치관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에 따라 8월 18일 이후 임시정부가 모든 점에서 사실상의 독립된 정부로 되었다. 둘째, 프랑스는 일본에 인도차이나를 불명예스럽게 팔아 넘겼고 또 연합국 측에 반기를 들었다. 셋째, 베트남은 대서양헌장에 의하더라도 극동자문위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Marvin Gettleman et al. 1985, 48)

그러나 트루만은 호지명의 호소를 묵살하였고 미국의 대베트남정책은 49년까지 아래의 기초를 띠었다. 첫째, 유럽재건에 차지하는 프랑스의 중요한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소극적인 반식민주의를 포기하고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 재식민화에 어떤 장애물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둘째, 베트남에 대해 좀 더 많은 권한을 할애하도록 가끔씩 충고를 하는 것이었다.(Thomas McCormick 1985, 47) 베트남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기보다는 대 프랑스정책의 보조차원에서 조건 지워졌으므로 둘째 기초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첫번째 기조가 강화되는 형식으로 49년까지 진행되었다. 첫째 조건은 유럽의 부흥을 피함으로써 유럽 공산화를 막는다는 47년 여름에 구체화한 마샬계획이다. 유럽의 부흥에서 프랑스는 가장 중요한 국가였다. 곧,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재식민화함으로써 옛날의 프랑스제국으로 부흥할 수 있고, 이러한 부흥은 프랑스 좌익의 집권을 저지시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영국에게는 말레이시아와 버마가 영국부흥의 중요한 받침이 되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석유와 천연자원, 말레이시아의 고무 및 주석은 유럽과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의 직접적 이해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되었다. 베트남은 미국에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다. 오히려 프랑스에 중요하므로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이었다.

둘째 조건은 일본에서의 '역정책(Reverse Policy)이다. 미국은 47년 말 중국의 장개석정권에 동북아의 맹주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자 일본에 그 역할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일본의 중공업과 재벌을 소생시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러시아, 중국이 공산화됨으로써 일본중심의 동북아시아경제체에서 일본공업제품의 수출대상국이었고 일본을 위한 식량 및 원료의 공급처였던 조선, 만주 및 중국, 러시아 등의 시장이 상실되게 되어 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0년 1월 10일자 NSC61(National Security Council)은 "일본 경제부흥의 지속과 유지는 동남아에서 공산주의를 막는데 달려있다.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한국, 인도를 함께 일본의 주된 무역 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William Appleman Williams et al. 1985, 47)고 서술하고 있어 베트남이 이제 또 대 일본 정책의 하위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주일본미대사관의 보고서(National Archives 834.00-TA/7-2452, July 24, 1952) 또한 일본 무역 권으로서의 동남아 위상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동남아의 농업증산은 일본에 낮은 쌀값을 보장하므로 유익하다. 둘째, 이는 또한 일본 상품의 구매력을 높인다. 셋째, 동남아 안정은 일본의 정치·경제안정에 본질적(essential)이다. 넷째, 일본은 동남아에 재정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기술지원은 가능하다.(William Appleman Williams et al. 1985, 84-5)

이러한 세계체제론에 입각한 대 베트남정책은 중국의 모택동이 중국해방을 진행시키는 속도에 따라 종속적 위치로 심화되어 갔다. 그러다 1949년 소련의 원자폭탄 보유와 중국의 공산화를 계기로 안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경이 이

취점으로써 도미노 이론이 도입된다. 이 때부터 미국에게 베트남은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중요 관심사로 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개입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정책이 바뀌게 된다.

이를 잘 요약한 것이 매코믹의 분석이다. 그는 1949년 후반에서 1950년 초반 미국의 대동남아정책은 3가지를 다 포용하려 했다. 첫째, 동남아 민족주의, 둘째,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후기식민주의, 셋째, 미국통제하의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부활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과 소련의 베트남민주공화국승인 이후 첫째, 동남아 민족주의의 회생을 통한 지역 안정화, 둘째, 사이비민족주의의 정당화, 셋째, 반공주의의 정당화로 바뀌었다.(Thomas McCormick 1985, 55-56)

결론적으로 미국의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도 베트남은 프랑스의 재식민화 정책 때문에 1차분단을 맞았을 것이다.

## 2. 2차분단 과정과 미국의 역할

1949년 프랑스는 홍콩에 망명 중이던 바오 다이를 끌어들여 3월 8일 엘리제 협정을 체결하고 그를 왕으로 재 추대하면서 '베트남국'(The State of Vietnam)을 6월에 창설하여 남부에 명목적인 허수아비 독립정부를 세워 2차 정치적 분단을 초래했다. 이렇게 남부에 허구적이거나 독립정부를 구상한 것은 48년 10월에서부터 베트남이 연대규모의 진지전을 수행할 정도로 전세가 균형단계를 넘어서고 곧 공세전으로 전화할 전망이 생기자 남부와 중부를 북부의 베트남정부와 분리 독립시켜 지속해서 프랑스의 지배하에 두려는 분할통치의 전략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동남아전역에 팽배한 민족주의, 유엔에서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관련되어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한적이거나 루주벨트식의 반식민주정책에 대한 미국의 간헐적인 요구 등의 예봉을 피하기 위하여 속임수에 불과하나마 베트남국을 출범시켜 형식적으로나마 독립국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략이었다.

이 형식적 독립을 위해 바오 다리와 프랑스사이에 체결된 엘리제 협정(Memorandum, Fosdick to Mr. Phillip Jessup, Nov. 4, 1949, National Archives 896.00/11-1849)은 미국무성 극동부에서 보더라도 완전히 사이비 및 속임수 독립협정이었다. 1. 외교권은 최종적으로 프랑스정부가 장악하고, 2. 프랑스군사기지를 베트남에 설치하고 전시에는 베트남군이 프랑스의 지휘하에 들어가며, 3. 프랑스는 소위 '총서비스'(General Service)라고 하는 관개, 통신, 공업 부분을 담당하고, 4. 관세수입은 곧 체결될 협약에 의해 프랑스와 베트남사이에

배분되고, 5. 프랑스거주민에 대한 치외법권은 지속적으로 인정된다.

마치 바오 다이가 프랑스식민지하에서 명목적인 왕이었듯이 '독립'되었다는 베트남국의 바오 다이는 여전히 프랑스의 단순한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친불민족반역자들이 이 독립된 베트남국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식민권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시너로 활약하였고 고딘 디엠이후 등장한 베트남공화국의 수뇌들인 티유, 키, 키엠 등은 이 당시 프랑스군인으로 조국 베트남이 아니라 식민도국인 프랑스를 위해 싸웠던 민족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허구적 독립국가인 베트남국을 수립하는 프랑스의 위선정책에 대해 미국은 49년 말경에는 궁극적인 동남아국가의 독립보장이라는 기존의 하위정책과 타이 등이 바오 다이정권 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동남아민족주의때문에<sup>7)</sup> 좀더 실질적인 자치, 궁극적인 독립약속, 프랑스 평정계획에 협력할 수 있는 토착군 육성을 충고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이를 거절하였고 미국은 지역안정화에 최우선정책을 두었으므로 바오 다이와 동거하게 되었다.

미국은 50년 2월 7일 바오 다이의 베트남국을 승인하고, 2월 27일에는 국가안보회의(NSC)가 베트남 원조를 승인하고, 이어 5월에는 베트남원조계획을 발표하고, 6월에는 군사고문관을 파견하고, 8월 10일에는 원조를 개시하고, 12월 23일에는 미국·프랑스·인도차이나 3국사이에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조인함으로써 적극적 개입에 나섰다. 더 나아가 8월 30일에는 미·필리핀사이에 상호방위협정이 체결되고, 10월 17일에는 미국과 태국사이에 군사협정이 체결되고, 51년 9월 1일에는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인 ANZUS가, 51년 9월 8일에는 대일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면서 대 중국포위작전을 실현시킨다.

이렇게 미국이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동남아 및 일본까지 상호방위조약으로 묶어두는 행위는 소련의 원자탄개발 성공과 중국의 공산화이후 확산된 도미노이론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냉전을 극단적인 군사적 대립으로 현실화시킨 NSC68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도미노이론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이웃의 라오스, 캄보디아,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차례로 공산화되기

7) 유엔총회회장이인 필리핀정치인 루몰라(Carlos Romulo)는 미국무장관 에치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랑스가 없이는 바오 다이 정권이 전혀 무력하다는 사실은 전세계가 알고 있는데 이 정권이 허구적인 수준에서나마 독립국가라고 증명하기는 힘들다. 당신과 내가 잘 알고 있듯이 동남아 이웃들도 그의 정부는 프랑스군이 점령하고 있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관할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Carlos Romulo to Dean Acheson, March 2, 1950. Papers of Den Acheson, Harry Truman Library, Independence Memo)

8) 1952년 6월 NSC124/2는 "장기적으로 볼때 동남아의 상실은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일본

시작하여 드디어 일본까지<sup>8)</sup> 공산화되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에 미국이 필연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론이다.<sup>9)</sup> 이제 베트남 전쟁은 식민주의와 반식민주의간의 전쟁에서 반공주의의 전쟁요소가 결합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적극적 개입은 중국군의 개입을 우려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프랑스라는 주역을 인정하고 프랑스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의 형태를 취했다. 1952년 3월 27일자 미국무성 정책보고서는 그 정책기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군사·경제원조를 계속하고 증가시킨다. 둘째, 프랑스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베트남군의 재정을 책임지는 형식으로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정책에 상당한(significant)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인도차이나에 건설적인 정치발전과 특히 인도차이나 3국정부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프랑스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프랑스의 개입을 줄이는 것을 반대한다. 다섯째, 미국군대를 인도차이나에 배치하지 않는다. 여섯째, 한국과는 달리 정전을 달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William Appleman Williams 1985)

미국은 이제 새로운 전쟁, 곧 기존의 반식민 민족해방전쟁(베트남) 대 재식민주의(프랑스) 전쟁에서 반식민·민족해방전쟁 대 재식민·반공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이 바뀐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1952년에는 전비의 40%, 53년말경에는 80%를 부담하면서 54년에는 무려 14억불을 제공하여 50-54년사이에 약 26억불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에푸합락을 계기로 제1차베트남민족해방전쟁에서 프랑스는 참담한 패배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4년 7월 20일에 체내바휴전협정이 프랑스의 델티엘(Deltiel) 장군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의 타 쩡 부(Ta Quang Buu) 국방차관의 서명으로 체결되었고, 21일에는 최종선언이 이뤄짐으로써 1차민족해방전쟁은 막을 내렸다. 1954년 현재 베트남의 병력은 정규군 10만, 지방군 5만, 게릴라 22만5천 등으로 37만 5천에 이르고 프랑스군측은 원정군 17만8천(백인 14만8천과 베트남인 3만), 남베트남정부 정규군 20만, 민병 5만 등 42만 8천이었다.(眞保潤一郎 1986, 167)

1950년 12월 29일자 미중앙정보국(CIA) 메모는 베트남에 의한 프랑스의 추

---

에정치적 경제적 압박을가해 일본이 소련진영에 타협 및 순응하는(comodation)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9) 이 이론은 ① 아시아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 민족주의, 문화와 전통 등을 무시하고, ② 모든 아시아인은 똑 같이 보이므로 행동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무의식적 인식이며, ③ 역사를 물 역사적으로 보고 있으며, ④ 중국이나 소련의 입장에서조차 역시 도미노이론으로 볼 수 있는 역도미노현상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

출은 거의 필연적으로 베트남을 공산화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은 1954년 4월 6일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케네디가 제네바협정을 비판하는 의회 발언에서도, 1954년 6월 1일 미 CIA 비밀공작책임자로 사이공에 몰래 잠입한 렌즈데일(Edward G. Lansdale)의 1955년 1월의 비밀보고서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인기도나 지명도 등을 고려할 때 호지명이나 그의 동조자들이 베트남의 분할정부를 수립하든지 연립정부를 구성하든 지간에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인도차이나 전역에서 지배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Robert Scheer 1965)

“전시중 인민대중과 베트민과의 관계는 몇몇 예외는 있지만 그야말로 모범적이다. 대조적으로 남베트남정부군은 다른 많은 아시아군대들처럼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고, 여자들을 제공하게 하는 데 뛰어난 재주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 사이공군 사특무대는(SMM-Saigon Military Mission)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Lansdale Team’s Report on Covert Saigon Mission in 1954 and 1955, in Mike Gavel, ed. 1971, 573-583)

이러한 예언대로 제네바협정과 최종선언에 따라 베트남은 민족해방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1956년 7월이 되면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민족사적 과제를 실현하게 되었다. 폴란드작가 즈콜로프스키에게 말하였듯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1차민족해방전쟁은 일찍 끝났을 것이라는 호지명의 역사추상은 정당하다. “우리 앞에는 미국으로부터 보내진 무기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우리 나라의 무고한 민중에게 고통을 증대시키고 있다. 만약 미국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훨씬 이전에 프랑스와의 협정에 도달했을 것이다”(眞保潤一郎 164).

결론적으로 만약 프랑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베트남은 2차분단이 없이 민족통일정부가 수립되었을 것이고, 또 만약 미국의 적극적·간접적 개입이 없었더라면 2차분단은 5-6년이란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고 훨씬 단축되었을 것이다.

### 3. 3차분단과정과 미국의 역할

약 10년 동안 지속된 1차민족해방전쟁이 마무리됨으로써 휴전협정에 의해 적대행위가 종식되고 최종선언에 의해 평화체제가 구축되게 되어 베트남은 약 80년만에 민족해방과 평화를 맞게 되어 있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과 프랑스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한국전쟁에서의 휴전협정과 마찬가지로 적대행위의 종식을 협약한 조약에 불과한 것이고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네바회의

의 최종선언'은 바로 이 평화체제를 보장해 주는 평화협정인 셈이었고 남북베트남에서 총선거를 56년 7월중에 실시하여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선언은 캄보디아왕국, 라오스왕국, 베트남민주공화국,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국,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영국, 미국이 참여하여 합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정과 최종선언은 미국이 3차의 정치적 분단을 피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하고 베트남민족은 또다시 제2의 민족해방전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제네바회담 당시 비록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동의를 했지만(서명은 하지 않았음) 이미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이란 해결책(이는 바로 인도차이나전역의 공산화를 의미한다)을 와해시키고 프랑스 철수에 대비한 대응책을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었다. 이 대비책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무명인사였고 부역자였던 고딘 디엠을 베트남의 인물로 부각시켜 그를 남베트남 제1권력자로 또 미국의 하수인으로 등장시키는 사업을 진행시켰다. 둘째는 미국 CIA 공작원인 렌스테일을 1954년 6월 1일 사이공에 침투시켜 비밀조직인 SMM(Saigon Military Mission)을 통해 북베트남에 대한 비밀공작과 남베트남에서 고딘 디엠의 권력장악을 위한 비밀공작을 결행하였다. 셋째는 동남아조약기구(SEATO)을 결성시켜 이 조약에 의해 프랑스철수후의 베트남사태에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개입을 할 명분을 확보하려는 작업을 추진했다.

첫째의 고딘 디엠을 남베트남의 강력한 지도자로 만들려는 계획은 1952년 3월 27일자 미국무성이 극비문서로 작성한 'NSC의 인도차이나부문에 대한 정책기안'에 잘 드러난다.(United States, Dept. of State, 1952-1954, XIII, 82-89) 이 문서는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안보는 토착정부가 인민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나 현재 바오 다이휘하의 남베트남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지도력이 부족하여 계속적으로 시련에 직면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당면 베트남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1. 베트남인들이 현정권에 대해 프랑스에 종속되고 있다고 여기는 불신과 무관심, 2. 비효율적인 행정, 3. 여러 사회세력들의 분파주의적 분열 때문에 조화롭게 결집된 국가적 노력의 부재, 4. 바오 다이정부의 비효율성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남베트남지도자로 미국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프랑스치하에 성장을 지난 부역자로서 국내기반이 전혀 없고, 단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반프랑스주의라는 것만이 알려졌으며 그 당시 해외에 거주하는 무명의 카톨릭신자인 고딘 디엠이었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피셀교수(Wesley

Fishel), 반공주의자 대주교 스펠만(Spellman), 케네디(John F. Kennedy) 및 맨스필드(Mike Mansfield) 상원의원, 대법관 더글러스(William Douglas) 등의 '지도자만들기'에 의해 고딘 디엠은 미국아(American boy)로서 바오 다이에 대한 대안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마치 필리핀의 막사이사이가 갑자기 국내의 무명인에서 미국에서 영웅으로 조작되어 필리핀에 역수입되는 형식으로 필리핀의 국방장관에 오르고 다시 대통령이 되어 미국의 괴뢰역할을 충실히 했듯이(강정구 1989b) 고딘 디엠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 1954년 7월 7일 바오 다이베트남국의 수상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미 CIA 렌스데일이 비밀공작을 통해 프랑스나 남부베트남의 기존 세력들을 몰아낸 뒤 55년 10월 26일 새로운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다(Scheer 1965).

디엠이 앞에서 언급된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일단 미국이 나름대로 구상하는 새로운 구도하의 지도자로 자리잡았다. 미국은 그가 독립 지향적이라서 식민종주국의 괴뢰라는 지목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민족주의적인 요구를 채워줄 수 있고, 도덕적인 신념이 투철하므로 아마도 미국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기대하면서 1955년 5월 11일 "우리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또 유일한 길이란 고딘 디엠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도박을 근거로 그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이다"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Dulles MSS in May 1955) 그러나 부역자로서 국내기반이 전혀 없는 무명인사가 미국애기(American boy)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범했을 때, 더구나 급진민족주의가 팽배하고 민족정통성을 완벽히 갖춘 호지명아저씨가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박은 백전백패로 예정되어 있었다.

민족주의적이라는 디엠은 베트남정부의 팜 반 동수상이 1955년 6월 6일 제네바협정에 의해 예정된 민족재통일을 위한 총선거준비작업에 관한 예비회담을 제안한데 대하여 7월 17일 남베트남의 수상으로서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남베트남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준수할 의무가 없고 북베트남에서 자유선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디엠은 취임 1년만에 미국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해내었다.

미국의 하수인격인 고딘 디엠을 권좌에 앉히고 미국의 남베트남지배를 구축하기 위한 비밀공작이 두번째 사업이었다. 이 비밀공작은 1954년 초 와싱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필리핀에서 인민해방군(HMB)을 섬멸시키는 데 지대한 공적을 쌓았던 CIA 공작원 렌스데일의 책임아래 진행되었다. 그는 1954년 6

월 1일 비밀리에 베트남에 부임하여 사이공군사특무단(SMM-Saigon Military Mission)을 조직하여 8월부터 비밀공작을 진행시켰다. 7월에 체결된 제네바협정과 선언에 의해 외국군이나 공작원의 베트남 인입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비밀리에 또 프랑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베트남인을 통해서 공작을 진행시켰다고 그의 보고서는 말한다.

구체적 활동은 공산지역에서의 준군사활동과 심리전의 수행, 중국군의 북베트남주둔과 그들에 대한 강간행위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카톨릭교인 중심의 피난민 수송 및 대처사업,<sup>10)</sup> 고딘 디엠에 대한 쿠데타기도 분쇄, 남베트남의 군대·경찰·깡패조직에 포진된 친 프랑스 세력집단의 혁파 및 디엠계의 조직, 북베트남의 다리 및 항만 등에 대한 파괴공작, 막사이사이 필리핀대통령의 도움아래 필리핀인 대베트남 공작 고용, 남베트남인들의 북베트남 잠입, 미국인론인들을 동원하여 SMM활동의 정당화 공세, 남부베트남군인들에 대한 기강확립, 필리핀을 초대하여 디엠대통령관저 경호대 조직 및 육성, 베트남군에 대한 군사훈련 등이었다.(Mike Gravel ed. 1971, v. 1, 573-583)

이들 공작을 통해 남베트남지배의 하루토대를 구축하였다. 1955년 2월 11일 미국은 베트남군에 대한 재정 및 훈련권을 양도받아 무력기구를 장악하였고, 최종적으로 미국무장관 덜레스는 1955년 5월 초 프랑스수상과의 회담에서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을 종식시켰다. 이로써 남베트남의 미국화는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성립된 제네바협정과 최종선언을 미국이 무력화시키면서 공개적으로 개입할 구실을 찾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동남아조약기구인 SEATO의 창설이다.

1954년 디엔비에푸 전투에서 프랑스의 패배가 예상되자 한국전쟁처럼 NATO국가들이 통일행동을 취하고, 영국에 디엔비에푸에 대량포격을 감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미국은 54년 3월 제네바협정에 의해 베트민 주도의 민족재통일이 이루어져 전 베트남의 공산화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견하여 이에

10) 제네바협정은 북위 17도선을 계선으로 월남인들의 자유이주를 300일 동안 허용했다. 54년 봄에서 55년 봄사이에 단지 15만 정도가 북으로 이주하고, 약 9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베트민쪽에서 남부월남으로 이주했다. 이를 두고 자유세계의 승리라는 선전전을 퍼대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첫째, 베트민은 북으로 이주하려는 숫자를 줄이려 했다. 왜냐면 총선에 대비하여 동조자를 남부에 잔존시키려 했다. 둘째, 남부이주자의 대부분은 프랑스군대 종사자 가족 23만, 카톨릭신자 679,000이었다. 이들 카톨릭은 프랑스식민통치의 부산물로 프랑스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군대조직을 만들어 프랑스 편에 가담하여 베트민과 싸우는 반민족적 집단이었기에 보복을 두려워 월남할 수밖에 없었다.(Scheer 1965)



대비한 조약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영국과 프랑스의 미온적인 태도와 캐나다의 불참으로 지연되었다. 더욱이 동남아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 실론, 인도, 버마, 파키스탄은 4월 28일 동남아수상회의를 열어 인도, 인도네시아, 버마는 휴전결의와 핵무기사용 금지결의를 하고 조약불참을 표명하는 등 반발을 보였다.

9월 8일 필리핀에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영국, 프랑스가 서명함으로써 이 조약은 출범했다. 이 조약은 제네바협정이 금지한 인도차이나에서의 군사동맹, 외국군사원조, 외국 군사기지 설치, 외국군 배치 등을 위배하고 인도차이나개입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조약 4조 1항은 “조약가맹국 또는 조약가맹국들이 만장일치로 지정한 보호구역의 어떤 국가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의한 침략이 그 나라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지할 때는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그 공동위협에 대처하는 집단행위를 각 가맹국은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날짜에 발효된 조약 의정서(Protocol to the Treaty)는 위의 4조1항에 규정된 보호국가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국의 주권 하에 있는 ‘자유지역’을 만장일치로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베트남에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 공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

위의 3가지 사업, 곧 고딘 디엠 지도자 등장, 비밀공작에 의한 미국 및 고딘 디엠의 세력화 기반 구축, 미국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베트남 개입에 대한 국제조약의 뒷받침 가운데 3번째 작업이 54년 9월 8일 제일 먼저 완료되고, 첫번째의 고딘 디엠 대통령 만들기와 미국 및 디엠의 세력기반화도 55년 중반 경이면 마무리된다.

이들 3가지 공작 또는 사업이 마무리된 후 1955년 10월 26일 베트남공화국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 출범하고 고딘 디엠이 초대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미국에 의한 3차 정치적 분단으로의 이행은 완료되었다. 이후 1975년 미국의 참패로 인한 완전철수때까지 이 3차 정치적 분단을 분쇄하고 민족재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약 10년간에 걸쳐 끈질기고 시련에 찬 제2차베트남민족해방전쟁은 지속되었다.

폴란드작가와의 대담에서 호지명이 언급했듯이 만약 미국이라는 외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베트남은 3차분단이 없이 제네바협정에 따라 최소한도 56년에는 재통일된 민족통일정부가 베트남의 주도하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 VI. 맺음말

베트남 분단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분단과정의 분석에서 우리는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외세는 매 단계마다 베트남고유의 역사행로에 상충되는 역사체적을 강요하였음을 확인했다. 비록 미국이 약탈적인 유럽의 전통적 식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헤게모니적 세계전략의 구도 하에서 대외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하여 처음부터 유럽의 전통적 식민주의 복원을 지원했다.

유럽의 전통적 식민주의가 인도차이나의 강력하고 급진적인 민족주의에 의해 패퇴하자 미국은 사이비민족주의를 진술한 민족주의인양 정당화시켜 고딘 디엔하의 베트남공화국을 출범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 유지의 보조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베트남의 강고한 민족해방투쟁에 의해 중단되고 미국에 처절한 좌절을 안겨 주었다.

미국이 초기에는 베트남을 자신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중국의 공산화와 소련의 원자탄 개발 등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 장악에 위협적 요소가 등장하자 갑자기 베트남은 미국의 핵심전략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헤게모니국가로서 세계체제를 재생산 및 강화하려는 구도 하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세계 체제에서 일본을 아시아의 핵심지역으로 설정해 미국의 세력권 하에 묶어두기 위해서 조선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의 민족주의를 철저히 희생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렇게 베트남의 분단에 대한 미국의 정책추이를 면밀히 검토할 때 소련과 미국이 각기 북과 남을 분할 점령하여 철저하게 맞서 있는 조선의 분할구도, 일본과 접해 있는 조선의 지정학적 특수성, 압도적으로 우세한 좌익세력과 이념적 지향 등을 고려할 때 조선의 분단은 거의 운명적으로 조건지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최근 일부에서는 조선의 분단을 미국 등의 외세개입에서 근원을 두는 외인론보다는 조선내부의 내적 역량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인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동태적 접근(Inter-dynamics Approach)으로 미국과 소련, 남한과 북한, 좌익과 우익에 대해 동일하게 양비론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거나 또 우리의 좌·우익세력들이 잘 만했다라면 분단을 막을 수 있었다는 내인론은 2차대전후 미국의 아시아 및 제3세계정책이 자본주의세계체제의 헤게모니국가로서 세계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한 세계전략에 철저히 종속되어 추진되었음을 간과하는 분석이다.

역사를 내적 요인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접근방법은 정당하지만, 우리만 잘 했더라면 아무리 침략적이고 강건한 외세라도 극복할 수 있었으므로 오늘의 분단과 환국전쟁 등을 우리 탓과 조상탓으로 돌리려는 내인매몰주의적 현대사 이해는 2차대전후 미국 등 제국주의외 동이 조선을 비롯해 동북아와 동남아에 제국주의

적 침략행위를 강행하고 신식민지적 질서를 강요한 업연한 반역사적 행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안겨주는 현대사의 왜곡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2차대전 이후 해방공간에서 우리 조선사회와 유사한 세계사적 구조와 내적인 혁명상태 하에 놓여 있던 동남아국가들의 역사행로가 미국 등 외세에 의해 얼마나 결정적으로 주조화되었나를 검토함으로써 내인론의 오류는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구. 1989a. 『좌절된 사회혁명』. 부산: 열음사.  
———. 1989b. “필리핀과 미국.” 『경제와 사회』. 봄 2권1호. 서울: 한국산업사회  
연구회.  
———. 1993. “미국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여름호 계간 21호,  
강태훈 외. 1987.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유인호. 1988. 『베트남사』. 서울: 민음사.  
유지열 편역. 1986. 『베트남 민족해방 운동사』. 서울: 이성과 현실사.  
이영희. 1985. 『베트남전쟁』. 서울: 두레.  
眞保潤一郎(조성을 옮김). 1986. 『베트남현대사』. 서울: 미래사.  
Beresford, Melanie. 1988. *Vietnam*. Pinter Publishers.  
———. 1989. *National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NY: St. Martin's Press.  
Duiker, William. 1981. *The Communist Road to Power in Vietnam*. Boulder:  
Westview.  
Eisenhower, Dwight. 1963. *Mandate for Change*. NY: Doubleday.  
Kim, Khan Huynh. 1982. *Vietnamese Communism, 1925-1945*. Itacha: Cornell  
Univ. Press.  
Kolko, Gabriel. 1985. *Anatomy of a War*. NY: Pantheon Books.  
———. 1988. “The Structural Consequence of the Vietnam War and Social-  
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18.  
Gittleman, Marvin, Jane Franklin, Marilyn Young, Bruce Franklin ed. 1985. *Viet-  
nam and America*. Grove Press.  
Gravel, Mike. ed. 1971. *The Pentagon Papers*. Beacon Press.  
Ho, Chi Minh. 1982. *Selected Works*. Hanoi: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Luce, Don and John Summers. eds. 1969. *Vietnam: The Unheard Voices*. Cornell  
Univ.  
McCormick, Thomas. 1985. “Introduction to Crisis, Commitment, and Counter-  
revolution 1945-1952.” in William Appleman Williams et. al. *America in  
Vietnam: A Documentary History*. NY: Anchor Books.  
Paige, Jeffery. 1975. *Agrarian Revolution*. NY: Free Press.  
Porter, Garth. ed. 1979. *Vietnam: A History in Documents*. Earl Coleman.

- Scheer, Robert. 1965. "Genesis of United States Support for the Regime of Ngo Dinh Diem." in *How the United States Got Involved in Vietnam. Report to the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tic Institutions*. Santa Barbara.
- Scott, James.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New Haven.
- United States, Dept. of Defense. n. d. *U.S.-Vietnam Relations(Pentagon Papers) - Ho Chi Minh: Asian Tito?*. 1, c-1-c-7.
- United States, Dept. of State. n. d.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75* v.7. Washington D.C.: Gov't Office.
- Williams, William Appleman. et al. ed. 1985. *America in Vietnam: A Documentary History*. NY: Anchor Books.
- Zagoria, Donald. 1967. *Vietnam Triangle: Moscow/Peking/Hanoi*. Pegasus.